

제16회 佛美展

오해군씨 '불감' 대상



금상엔 김성희·이동엽씨 8개분야 269점 응모...122점 입상 운영·심사촉 분리 "공정하다"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오해군씨(61·부산시 강서구 대서2동)의 공예작품 '불감(佛龕 47cm x 46cm)'이 대상(총점상)을 차지했다.

야에서 총 269점이 응모했고 이중 122점이 특선 입선 등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부터 불미전은 기존 운영방식을 바꾸어 예배용(전통)불교미술과 감상용(순수)전통미술로 양분해 출품분야가 확대됐고 상금도 대폭적으로 올렸으며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분리하는 등 운영에 대폭적인 변혁을 시도해 과거에 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경숙 기자

대상 받은 오해군씨



40여년 목각 독학 10월 첫 개인전 예정

“대표작 남기겠다” 마음의 눈으로 작업

“제작하는 내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하시던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일생일대의 대표작을 남기겠다는 일념하에 마음의 눈으로 만들듯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미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불감'의 작가 오해군씨는 올해 두가지 경사가 겹쳤다. 14회 불미전서 입선, 15회 불미전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마침내 최고상인 대상의 영광을 안았고 오는 10월에는 공평아트센터에서 40년 목각인생을 결산하는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은 완성에 꼬박 3년이 넘게 걸렸을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 단단한 대나무나무에 3선불화상도를 역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 이번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결부분 못지않게 숙부분 위아래까지 정교한 각법을 구사한 점이 돋보이며 형상력이 뛰어난 극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렇다 하게 내세울 스승도 없이 오로지 독학과 집념으로 목각에 정진해 왔지만 각종 대회에서의 큰 상운(運)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풀린 뒤늦게야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살아있는 작품제작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

불심시심 <80>

머리 돌려 멀리 하늘 보다

一下牛城又一年 우성을 내려오니 또 한 해 (일하우성우일년)
峨嵋物色夢依然 아미산의 풍경은 꿈에만 아득 (아미물색몽의연)
通知象外禪興興 물상 밖의 참선의 흥 녀넉할 알면서도 (요지상외요선흥)
肯念塵間重俗緣 티끌세상 무거운 세속인연 아취워하나 (금념진간중속緣)
林月放明香葉露 숲의 달 불 잎의 이슬을 여기 저기 비추고 (임월산명향엽로)
寺鐘寒度暮山煙 (사중한도모산연)
關河搖落傷懷抱 국경 저 멀리서 서글퍼하는 회포가 지니 (관하요락상회포)
矯首難堪望遠天 머리 돌려 먼 하늘 바라보기 힘겨워 (교수난감망원천)

위 시도 허정대사의 '망향산(望香山)'이라 제한 시이다. 지난 주에도 허정대사가 묘향산의 상운암에서 지은 시를 소개하였다. 거기서는 암자의 정경보다는 그 암자의 주인공 인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시였다. 이번의 시는 묘향산을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속세로 내려온 지 한 해가 넘게 걸렸을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 단단한 대나무나무에 3선불화상도를 역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 이번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결부분 못지않게 숙부분 위아래까지 정교한 각법을 구사한 점이 돋보이며 형상력이 뛰어난 극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렇다 하게 내세울 스승도 없이 오로지 독학과 집념으로 목각에 정진해 왔지만 각종 대회에서의 큰 상운(運)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풀린 뒤늦게야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살아있는 작품제작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

지금 묘향산에 어우러질 풍경, 불이 되어 새책으로 듣는 앞에 달빛이 어리고 이 앞뜰에 맺은 이슬은 구슬인 양 동글동글한데

문화 소식

죽림사 괘불 도 유형문화재로

전라남도도는 지난 2월27일 문화재 위원회의를 열고 나주 죽림사 괘불을 도 유형문화재 제190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죽림사 괘불은 1623년(인조)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현존 40여괘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슬라이드로 보는...' 불교강좌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홍)은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자비전파 강의실에서 '슬라이드로 보는 불교문화 이해' 강좌를 개최한다. 내용은 △불교의 세계관(3월 11일) △탑의 이해(3월 18일) △불보살의 이해(3월 25일) △불구의 이해(4월 1일). (02)739-8430

세계의 꽃잔치 일산서

'꽃과 인간 만남' 5월3일부터

연등축제·승무 등 공연

우리나라와 세계의 온갖 화려하고 진귀한 꽃들이 오는 5월 일산신도시 30만평 호수공원에 모인다. 오는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25개국이 참가하는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 기간중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연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지는 연등축제도 화려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꽃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꽃박람회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백여 화훼업체와 국내 1천여 꽃재배농가가 정성스럽게 기른 연꽃 장미 난 선인장 등이 1만 5천평의 야외꽃잔치장과 3700여 평의 실내꽃잔치관에서 전시된다. 또한 9천여평의 극

제조각공원에 국내외 유명 조각가의 작품 30여점이 톨립공원 장미공원과 함께 꾸며진다. 꽃박람회 기간중에 있는 부처님오신날(5월 14일)에 열리는 연등축제에는 오색 연등 점화식, 찬불가 부르기, 승무·바라춤 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행사가 펼쳐진다. 저녁 7시부터는 일산신도시에 소재하는 사할 신도들이 대형 연꽃을 앞세우고 각 사할까지 제등행진도 펼쳐 예정.

이밖에도 화려한 날리기, 농악대 길놀이, 서커스, 고적퍼레이드, 외발자전거요기 등과 화환제작 경연대회, 꽃결혼식, 꽃가족 사진촬영대회, 꽃산악발전국제세미나, 꽃여왕 선발대회 등 시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0344)62-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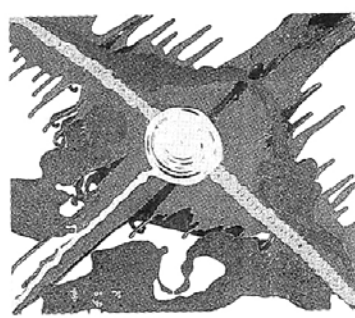
홍미경씨 "존재의 근원 그림보기"

19~24일 대구 대백갤러리... '건강' 등 40여점

불교사상을 추상적으로 조형화해 온 홍미경씨가 오는 19~24일 대구 대백갤러리 A관에서 '에너지 아트'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에너지를 강렬한 선과 원색으로 표현한 '축복 에너지' 시리즈와 위장 상징 신장 등 인체의 각 부분을 상징화한 '건강시리즈'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홍미경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



홍미경 작 '축복에너지-나'

을 주관적 논리로 다가가려 하지만 모든 존재의 근원인 에너지의 원질(原質)로 우주 보편의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속>

만해백일장 소래삼씨 '대상'

대한불교청년회 주최 제18회 만해백일장에서 소래삼씨(서울대 3년)의 '아버님께'가 대상(만해상)을 차지했다.

지난 1일 동국대에서 열린 백일장에는 초·중·고 대학일반부 등 총 8백여명이 '불비' 아버

지 '이땅의 부처님' 등을 주제로 문제를 겨룬 가운데 이주희(진선여고 2년)와 등 3명이 장원, 이원주(동대부고 1년) 등 7명이 우수상, 이송희(이화여대 대학원)씨 등 20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땅의 부처님

이주희 (진선여고 2년)

그래서 더더욱 보고파 그리움이 남는 그 얼굴 언제나 한 번 봐줄 수 있을까 밤을 새워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듣고파 그리움이 남는 그 목소리 밤을 새워 기다려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

아! 드디어 부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얼굴 아버의 목소리

오 여기 계셨군요

부처님

부처님

(시·시조부문 고등부 장원)

Advertisement for 'Himalaya Chanyang Tanseung'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featuring incense sticks and a candle. Text describes the products as natural and high-quality, suitable for home use.

Advertisement for 'Doseon (Doseon) 7th Buddhist Law Conference' (丁丑年(六庚申道通) 제7회 법회 안내). Details the schedule for the law conference, including dates and times for the main ceremony and a 2-day seminar.

Advertisement for 'Life Science and Mantra' (생명공학과 부적). Promotes a book and seminar on the power of sound and form energy. Includes details about the book 'Mantra and Yantra' and a seminar on 'Success for the Sincere'.